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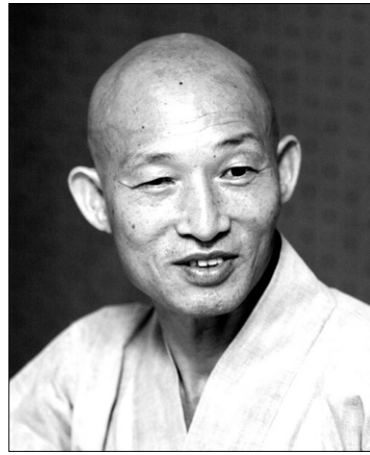
옛 시 85편에 흐르는 인문의 향기 전해



일 줄이고 마음 고요히
홍선 지음
놀이 펴냄
1만 6800원

스며든 저자의 맑은 감성을 전한다.

“앞 산 뒷 산 환구름/동서 시바 맑은 달/스님은 좌선하고 꽃비는 지고/나그네는 잠들고 산새는 울고”(후정대사)



후정대사, 두보 등 문인들 시 소개
직접 손글씨로 원문과 번역문 수록

는 관계의 망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을 관조한다. 그리고 “고요한 물과 묵묵한 돌이 만나 온 산을 울리는 우레 소리 내듯” 우리도 남과 만나며 다른 날, 다른 하늘을 열고 있는 지 몰아온다.

우리를 허덕이게 하는 일과 감정을 즐기고 침묵 속에서 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렵다. 옛 시를 통해 건네는 저자의 예시가 흔탁한 우리 삶에 맑은 바람, 푸른 바람을 불어넣는다.

옛 시를 계절별로 나눠 싶었다고 했지만, 사실 그 이상이다. 예를 들면 연방에서 시작

된 이야기가 윤선도, 주돈이, 안민영의 연꽃을 거쳐 요사부손의 하이쿠, 경주 흥륜사터 석조에 새겨진 글귀로까지 이어진다. 또는 우리의 손발을 잠시 묶어놓는 게 장마의 미덕이니 “공작산 수타사로 물미나리나 보러” 가져며 김사인의 시 ‘장마’를 읽어주는 식이다.

적절한 위치에 들어간 고전의 한 구절, 시 한 소절은 글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산속 절집에 사는 지은이에게선 옛 선비를 만난 듯 인문의 향기가 느껴진다.

책을 사계절, 네 부분으로 나눈 사이들 속에는 지리산 화엄사의 흥매, 안동 제비원의 도라지꽃밭, 부여 가림성의 감국, 눈보라 휘몰아치는 청양 대숲을, 넓게 펼쳐지는 종이에 담아 글과 더불어 계절감을 남김없이 생생하게 전한다.

또한 옛 시의 원문과 번역문을 또박또박 적은 ‘손글씨 모음’을 책 말미에 본문과 차별되는 재질감 있는 종이에 곁들였다. 저자의 정성스런 배려들이 고즈넉한 옛 시들과 어우러 파스하게 전해진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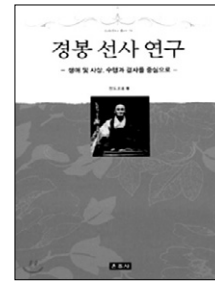
▲저자 홍선 스님은?

1974년 직지사로 출가해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직지사 성보박물관 관장, 불교중앙박물관 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직지사 주지이자 문화재위원이다. 스님은 제 4회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봉선사의 삶과 선편 체계적으로 연구 조망

경봉선사연구

정도 지음 | 은주사 펴냄 | 1만7천원



경봉 선사는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고승 중 한 명이다. 그는 간화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통

도사를 중심으로 가림수호와 교화에 남다른 업적을 남겼다. 또한 근현대 불교개혁 과정에서도 정신적인 중심이었으며, 당대 고승들과도 서신 및 법거랑을 통해 독자적인 선편을 남겼다. 경봉 스님은 선사로서뿐만 아니라 시인으로서, 화가로서, 서예가로서도 유감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근현대 역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통도와 강원 강주와 주지, 선학원 이사장과 극락국사선원 조실로 주석하면서 대중 교화에 힘써 한국 현대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 책은 이러한 경봉 선사의 삶과 사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의 선편(禪風)을 체계적으로 드러내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근현대 한국불교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기획했다.

이 책은 경봉 선사의 생애와 선사상을 조망하고, 한국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선사의 위상, 선사가 한국 불교교단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하여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다섯 주제로 구성했다.

첫째, 경봉 선사가 살았던 불교계의 현실과 그의 구도적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기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불교계의 동향, 경봉 선사의 생애를 네 단계로 나눠 고찰하고, 그가 지은 <법해> <삼소굴일지> <삼소굴소식> <원광한화집> 등의 저서들을 하나씩 분석한다.

둘째, 경봉 선사의 선사상은 한국 선사사상에 있어서 누구의 선사상을 계승하고 있는가이다.

여기서는 먼저 경봉 스님의 선사상은 보조 지눌의 선교일치와 간화선 사상을 계승한 것이라 논증하고 있다.

그리고 경봉 스님의 서신왕래를 분석해 보조 지눌대사의 사상을 계승한 동성 및 한암 스님의 선교경수와 용오점수 사상을 받아들였고 이를 창조적으로 실천했음을 고찰하고 있다.

셋째, 경봉 선사 선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세 가지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먼저 경봉 스님의 선리관(禪理觀)은 종말이 분류하고 지눌 스님이 <절요사기>에서 제시한 직현심성종(直顯心性宗)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증론에 있어서는 보조 지눌대사서부터 백파 공선을 거쳐 경허에까지 이어지는 돈오점수의 간화선을 채택하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선편에 있어서는 철저한 생활선적 선편을 견지하였음을 밝힌다.

넷째, 경봉 선사의 수행과 결사의 내용인데 경봉 스님이 선과 교를 아우르는 선교경수의 입장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수행과 법문을 실천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출제가들이 함께 수행하는 다양한 결사를 조직했음을 설명한다. 즉 만일참선결사, 만일염불결사, 화엄산림법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섯째,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경

철저한 생활선적 선편경지 선교경수의 확고한 신념 펼쳐 간화선대중화, 교단개혁 공적

봉 선사의 위상은 무엇이며, 그가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이다. 먼저 경봉 선사의 위상에 있어서는, 한국불교의 성격은 ‘회통’으로 봤을 때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있어서 보조, 휴정, 경허로 이어지는 회통불교의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교경수, 선정쌍수 등의 회통적 특징을 발휘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간화선 전통을 대중화하여 생활선적 간화선으로 펼쳤으며, 수행전통을 회복하고 교단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아냈다.

불교계에 끼친 영향으로는, 간화선 대중화에 기여했으며, 수행처와 포교원을 설립하고 다양한 대중법회를 열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선화와 선사사상에 있어서 누구의 선사상을 계승하고 있는가이다.

이와 같이 이 책은 경봉 선사의 삶과 사상을 조망하고, 선사가 한국불교사와 현 불교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깊이 있게 조망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을 위해 손수 지은 선화와 선풍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해설함으로써 경봉 스님의 생활선적 선편과 예술적 깊이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했다.

김주일 기자

결혼 생활서 죽음에 대한 통찰까지 인생 조언 총망라

슬프고 웃긴 사진관

아잔 브람 지음 | 2칸스님 옮김 | 김영사 펴냄
1만3천원



이 책은 세계적인 영적 스승 아잔 브람이 생애에 대한 빛나는 통찰과 웃음을 통해 슬픔과 불행은 한순간에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 예제이다.

이 책의 밑바닥을 흐르는 생애에 대한 탁월한 통찰은 ‘죽음 콘서트’ 편에서 잘 나타난다. 아잔 브람은 1951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덕분에 레드 제플린이나 롤링 스톤스 같은 전설적인 그룹들의 콘서트에 다닐 수 있었는데, 그는 콘서트가 끝나고 돌아오는 런던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이 음악을 다시는 못 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거나 울지는 않았다. 대신 그런 멋진 음악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감이 밀

려왔다. 열일곱 살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느낀 감정도 그때의 콘서트와 똑같았다. 슬픔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훌륭한 분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 행운이었고, 영광이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슬픔은 죽었다는 상실을 보는 것이고, 콘서트는 함께 지냈던 시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것은 인생의 많은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놓아버림’의 명상과 더불어 결혼과 독신, 동성에 문제, 직장생활 등 생활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어느 날, 한 자매가 상담을 하기 위해 절로 찾아왔다. 언니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그런데 동생은 결혼을 하지 못해서 걱정하는 사람이었다. 아잔 브람은 두 자매에게 해법을 주었다. 먼저 독신자인 동생에게 말했다.

“당신의 언니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필요 없으면서 헤어지겠다고 합니다. 당신은 남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 이제 그림 서로 바꾸세요. 자매들은 항상 공유하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십시오.”

그 다음 진지하게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언니에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결혼 생활의 고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남편을 버리고 이혼한다면, 당신 동생이 가지고 있는 독신녀의 고통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놓아버림 명상’으로 해법 제시

바라는데 없을 때 행복 찾아와

‘협력’은 직장서 행복 위한 필수요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없어도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지고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지고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만족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이것은 싫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원해’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직장 생활에서는 통제하고 일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조언한다. 좋은 상사는 오히려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다. 자기 권한을 넘겨줄 줄 아는 것이다.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을 믿는 것이다. 남을 통제하려는 건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방법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축구팀처럼 팀을 꾸려서 협력하는 방법이다. 스타 선수 한 명은 결코 최고의 팀이 될 수 없다. 좋은 감독이 열한 명의 선수를 하나의 팀으로 만든다. 좋은 팀워크가 만들어지면 뛰어난 기량을 가진 스타 선수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하나의 팀이 된다.

회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회사Company’라는 말에 담긴 의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회적 기술들을 배워야 한다. 해야 할 일을 맡아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워주는 기술 말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